# “광주·전남 산단 투자 사업자 어디 없소?”

## 산단공단, 첨단·대불·여수·광양산단 혁신산단 탈바꿈 착수
## ‘부지활용’ 이견에 민간사업자 발굴 난항…내달까지 3차 공모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민간사업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단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십년 된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해 산단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광주·전남 4개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중이지만 여태껏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개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지 내 입주업체의 생산력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노후화가 심각하고 산업재해에도 취약한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정주여건을 바꿔 공장만 있는, 생산만 하는 산업단지가 아닌, 문화를 즐기고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단 내 토지소유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을 찾아 기존 산업시설 용지를 첨단공장·지식산업센터, 창업 R&D센터·직업훈련시설, 기숙사형오피스텔·수영장 등 문화컨벤션 시설 등으로 변경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부지용도 변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젊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산단공 설명이다.

산업단지공단은 광주·전남에서는 첨단과학산단을 포함해 대불, 여수, 광양국가산단 등 4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구상을 마련, 추진중이지만 민간사업자 발굴에 실패하면서 첫 삽은 커녕, 리모델링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7년 준공된 대불산단(1036만㎡)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여태껏 선정하지 못했고 여수시 중흥동과 화치동 일대 조성된 여수국가산단(3255만㎡)도 연관단지가 준공된 지난 2015년부터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적격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명이다.

산업단지공단측은 지난해부터 광주첨단과학산단(364만㎡·2단계 준공 2012년)과 광양산단(2760만㎡)에 대해서도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지만 여태껏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선정한 30개 대행사업자도 반월시화, 남동, 서울디지털, 군산, 구미 등으로 수도권 지역 산단이 많다.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2차례의 공모에서도 서울디지털단지와 구미단지에 대해서만 희망자가 나선 상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산단에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 발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산단 내 개발 대상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조업체와 수익성을 노린 상업자본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산업단지공단이 다음달 30일까지 올 들어 3번째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취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산단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시설, 업무기능 및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 혁신산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 ↓ 코스피 | 2265.46 (-7.30) | ↓ 금리 (국고채 3년) | 2.12 (-0.02) |
| ↑ 코스닥 | 799.10 (+3.39) | ↓ 환율 (USD) | 1114.50 (-4.20) |

# 효성 - 룩셈부르크 경제협력 모색

## 조현상 사장, 총리 단독 면담

룩셈부르크 정부가 효성과의 협력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효성은 조현상 〈사진〉 총괄사장이 방한 중인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지난 2일 단독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룩셈부르크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베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조 사장에게 효성이 인수한 룩셈부르크 타이어 공장의 원활한 운영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련 조언을 구했다는 게 효성측 설명이다.

효성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룩셈부르크 타이어코드 공장을 인수, 섬유코드와 스틸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유럽에 수출된다.

룩셈부르크는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기욤 장 조세프 마리 왕세자가 경제사절단과 함께 효성 본사와 사업장을 방문해 조 사장과 만찬을 갖는 등 효성과의 협력과 관계 강화에 관심을 보여왔다.

효성 측은 “조 사장의 외할아버지인 고(故) 송인상 전 재무부 장관이 1974년 유럽공동체(EC) 대사를 지내는 등 효성과 유럽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목포 신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속조치…59면→84면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4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광주 말바우시장 등 10개 시장(20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목포 신중앙시장을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기간 2년, 총사업비 1082억원(국비 60%·지방비 40%)를 투자해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가지원은 조선업종 위기에 따라 지난 5월 목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목포시를 중심으로 신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실 개·보수, LED 조명 설치, CCTV 설치, 외관 도색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협소한 주변도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차 불편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용객 감소와 함께 매출 또한 급감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목포시는 이번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59면에 불과한 주차면수를 25면 추가하여 84면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중앙시장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담양 어르신들 찾아 ‘행복 의료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4일 담양 대전농협(조합장 이재곤)과 함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펼쳤다.

이날 농업인 행복버스 의료지원에 참여한 광주수완병원은 60세 이상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체크, 비타민 영양제 투여, 척추·관절 질환 건강상담 등을 지원했고, ‘kunst 스튜디오’는 200여명의 장수사진을 찍어줬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평양예술문화공연도 진행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농촌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장수사진, 안경지원,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외국인 직접투자 158억원…역대 최고

## 1~6월 전년비 64% 증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연간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57억5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며, 이미 작년 1~3분기 실적(135억9000만 달러)을 추월했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76.4% 증가한 9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작년 대비 106.3% 증가한 45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96.0%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다.

화학공업·자동차부품 투자가 계속되고 도·소매업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지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딩 등 정보통신과 부동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투자자 ‘핫 종목’은 금호타이어·경협주

## 3월·4월 최다 거래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굵직한 이슈로 얽힌 업체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광주·전남 주식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역 투자자들은 상반기 중국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매각된 금호타이어, 남북 경제협력(경협) 관련 업체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해외 매각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한 달 1596만주가 거래되며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으로 꼽혔다.

4월부터는 ‘경협주’로 평가받는 업체에 대한 거래가 급증했다.

강관 생산기업 동양철관의 경우 남북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주로 얽히며 지난 4월 1995만주까지 거래되며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으로 꼽혔다.

동양철관은 5월에는 주식거래량 2위를 차지했다가 지난달 2414만주까지 거래가 급등하면서 다시 1위로 뛰어올랐다. 동양철관은 지난달 거래대금으로도 7위에 오르며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주에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은 경협주에 쏠렸다.

대북 송전업체로 경협주로 꼽히는 이화전기는 1월 2185만주(광주전남 거래량 4위), 2월 682만주(〃 9위)가 거래되더니 3월부터 3603만주, 4월 6818만주, 5월 5696만주가 거래되면서 지역 투자자들 간 거래종목이 가장 많은 종목에 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